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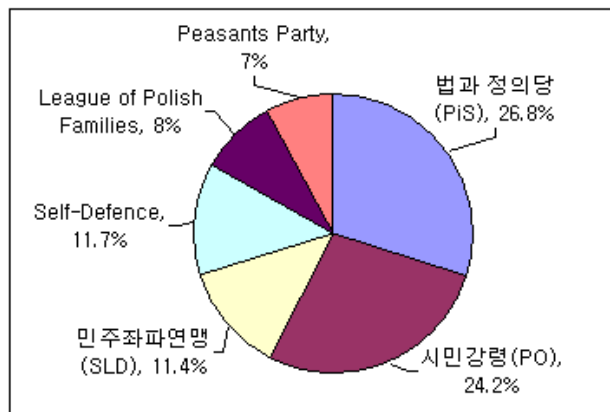
폴란드 총선결과 및 시사점

I. 총선결과

- 2005년 9월 25일 실시된 폴란드 총선에서 중도우파 야당인 '법과 정의 (PiS)당'이 27%의 지지율로 하원 의석 460석 중 152석을 차지하며 제1당이 됨. 선거전에서 PiS당과 접전을 벌였던 보수우파 정당인 '시민강령 (PO)당'은 24%의 지지율로 133석을 차지하여 PiS당과 우파 야당연정을 구성하게 됨.
- 한편, 前집권당인 민주좌파연맹(SLD)의 지지율은 11%를 기록하면서 56석을 확보하는데 그침. 부패 스캔들 및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SLD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도가 하락하면서, 한때 총선 직전 여론조사에서 5% 의석 저지선 획득 여부도 불투명했으나 총선 결과 의회 진출에는 겨우 성공함.

<그림 1>

2005년 폴란드 총선결과 정당별 의석 점유율



- 2004년 5월 폴란드가 EU에 가입한 이후 처음 실시된 이번 총선에서 투표율은 38%를 기록해 1989년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이래 가장 낮은 총선 투표율을 기록함.

II. 시사점

(1) 정치 및 경제 분야 개혁 기대

- SLD는 지난 2001년 총선에서 정권을 장악했지만, 집권기간인 지난 4년 동안 부패 혐의로 총리가 교체되고 재무장관이 3번이나 경질되는 등 부패 스캔들이 끊이지 않았음.
- 또한, 18%대에 이르는 높은 실업률 및 GDP 대비 4%를 상회하는 재정수지 적자 추세 등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, 경제 회복 및 개혁이 이번 총선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됨.
- PiS당은 이번 총선에서 강력한 反부패 정책 및 사회 치안 유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前집권당의 부패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투명한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함. 또한, 경제개혁과 더불어 사회복지제도를 유지할 것을 약속하여 좌우 진영으로부터 고른 지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됨.
- 반면, PO당은 15%의 단일 세제율 도입, 각종 규제 철폐 및 민영화 가속화 등 과감한 경제개혁안을 제시해 경제계의 지지를 받았으나, 사회복지축소를 우려하는 유권자들의 지지율 하락으로 제1당이 되는데 실패한 것으로 분석됨.

(2) 10월 대선에서 PiS 당수의 선전 예상

- 이번 총선 결과는 오는 10월 9일 실시될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도 영향을

미칠 것으로 보임.

-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PO당의 Donald Tusk 총재는 45%의 지지율로 33%의 지지율을 획득하고 있는 PiS당의 Lech Kaczynski 총재를 앞서고 있으나, 총선에서 PiS당이 제1당이 됨에 따라 Lech Kaczynski의 선전이 기대되고 있음.

(3) 연정 구성당간의 정책노선 차이 조율이 관건

- 기본적으로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는 PO당과 정부의 경제개입을 옹호하는 PiS당이 연정을 이루면서, 두 당간의 정책 조율이 新정부의 가장 큰 해결과제로 대두될 전망이다.

□ PiS당과 PO당은 다음과 같은 정책 분야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음:

- **세계관련 정책:** PO당이 부가가치세,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등에 대하여 15% 단일 세제율을 도입하고자 하는데 반해, PiS당은 누진세제를 선호하고 있음.
- **민영화 정책:** PO당은 천연가스 및 원유 파이프라인 등 인프라를 제외한 부문의 공기업 민영화를 지지하고 있는데 반해, PiS당은 민영화 정책에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음.
- **재정 정책:** 양당 모두 2006년 GDP 대비 재정적자폭을 올해의 3.6%에서 3%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지만, 그에 대한 해결 방안 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. PO당이 연금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혜택의 축소를 주장하고 있으나, PiS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음.
- **사법개혁 문제 등:** PiS당은 당명(Law and Justice)대로 사법개혁에 가장 큰 의지를 갖고, 사회주의 시대 문서 공개 및 중앙은행(NBP) 통제 강화 (통화정책위원회 해산포함)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, PO당이 최소한 통화정

책위원회의 해산만큼은 저지할 것으로 전망됨.

- EMU 가입시기 문제: PO당은 EMU 조기 가입(2009년)을 선호하고 있는 반면, PiS당은 유로화 도입의 실익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며 EMU 가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.

폴란드주재원 및
전문연구원 최은경 (☎3779-6665) 제공
E-mail : ericachoi@koreaexim.go.kr